

개발 직군 취업 세미나

개발자 취업 분야
IT시장 채용 현황
자기소개서 예시
포트폴리오 예시 소개

1. 개발자 취업 분야

다음은 사람인 사이트에서 취업 지원처를 검색하는 예시이다.

직업(5) 백엔드/서버개발, 웹개발, 유지보수, 풀스택,

지역 선택

검색어 입력

상세조건

직업(직무) 또는 전문분야 입력

IT개발·데이터 (12,224)	<input type="checkbox"/> IT개발·데이터 전체선택		가나다순
디자인 (8,597)	직무·직업	개발PM (618) 게임개발 (285) 기술지원 (1,709)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247) 데이터분석가 (687) 데이터엔지니어 (658)	
영업·판매·무역 (25,085)		백엔드/서버개발 (2,082) 보안관제 (427) 보안컨설팅 (466) 앱개발 (901) 웹개발 (2,074) 웹마스터 (216) 유지보수 (1,809) 정보보안 (1,116)	
고객상담·TM (6,294)	전문분야	검색엔진 (96) 네트워크 (1,357) 데이터라벨링 (166) 데이터마이닝 (225) 데이터시각화 (319) 딥러닝 (640) 루비온레일즈 (1)	
구매·자재·물류 (11,184)		머신러닝 (673) 메타버스 (59) 모델링 (192) 모의해킹 (171) 미들웨어 (144) 반응형웹 (300) 방화벽 (375) 블록체인 (167)	
상품기획·MD (6,550)	기술스택	그누보드 (30) 라즈베리파이 (39) 쉘스크립트 (62) 스마트컨트랙트 (20) 아두이노 (22) 액션스크립트 (7) 어셈블리 (31) 와이어샹크 (15)	
운전·운송·배송 (6,990)		임베디드리눅스 (424) 파워빌더 (17) 풀스택 (337) .NET (262) ABAP (72) AIX (49) Ajax (117) Android (287) Angular (81)	

다음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취업 지원처를 검색하는 예시이다.

직무

↑

근무지역

↓

경력

학력

기업형태

고용형태

직무, 전문분야 입력

🔍

인사·HR

마케팅·광고·MD

디자인

운전·운송·배송

고객상담·TM

식·음료

엔지니어링·설계

회계·세무

AI·개발·데이터

물류·무역

영업

금융·보험

고객서비스·리테일

제조·생산

백엔드개발자 (1,999)

프론트엔드개발자 (1,300)

웹개발자 (2,027)

앱개발자 (888)

시스템엔지니어 (2,340)

네트워크엔지니어 (1,132)

전체 (2,269)

SI개발 (709)

아키텍처 (444)

정보보안 (334)

시스템설계 (756)

시스템분석 (631)

클라이언트 (367)

산업

↓

직급/직책/급여

↓

우대전공

↓

자격증

↓

우대조건

↓

복리후생

↓

백엔드개발자 ✕

프론트엔드개발자 ✕

웹개발자 ✕

시스템엔지니어 ✕

소프트웨어개발자 ✕

🔄 초기화

☆ 조건저장

선택된 조건 검색하기

웹 개발자 직무

웹 개발자가 하는 업무는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 중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걸 경력직으로 이직 할 때 생각하자. 우린 가리지 않는다. 받아줄 때 들어가자.

SI(System Integration / 시스템 개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이다. 통상적으로 SI 업체는 해당 회사의 특화된 사업 2~5가지 정도를 포트폴리오로 내세운다. SI업체에 입사하게 되면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웹 개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초반 빠른 레벨업이 가능하다. 단, 그만큼 초반 업무 강도가 빠세다. 또한, 회사마다 다르지만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갈 수 있다. 파견 여부는 면접 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SM(System Maintenance / 시스템 유지보수)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을 유지보수(오류수정, 기능추가)하는 업무이다. 유지보수 특성상 전화 응대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SI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도를 보이거나, 코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실력 향상에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널널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웨라벨이 중요하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Solution 개발

자사의 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엑셀, 한글). 업무강도는 SI와 SM의 중간 정도이며, 특정 분야에 대한 개발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단, 다른 곳으로 이직 시 같은 분야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에만 이직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본인이 특정 시스템 개발에 목표가 잡혀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2. 개발자 취업 시장 현황

다음은 2025.07.08일 기준 사람인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의 수이다.

지역	전체 공고수	경력직 공고수	신입 공고수
울산	48	25	23
서울	2744	1994	750
경기	1112	673	439
대구	119	55	64
부산	199	102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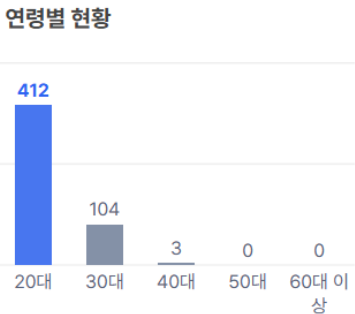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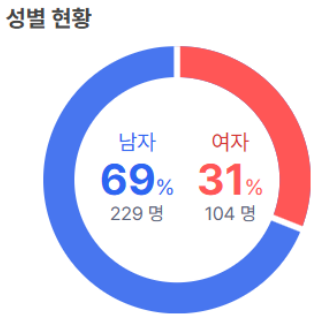
수치만 보면 ‘할만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위 데이터는 중복데이터, 개발자 유사 직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생각보다 지원 할 곳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서울 지역 개발 회사의 경쟁률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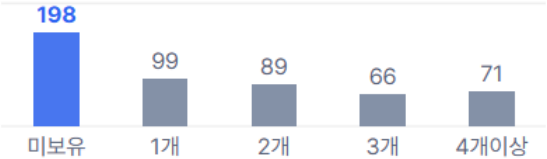
크리스피드(주) ♡ 관심기업



대표자명 *	최해문	기업형태	중소기업, 주식회사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원수 *	225 명 (2023년 기준)
설립일 *	2000년 9월 20일 (업력 26년차)	매출액 *	529억 6,493만원 (2023년 기준)
홈페이지	www.crespeed.com	기업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B동 1001...



자격증 개수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제출

- ② 이력서 135명
- ③ 기타 93명
 - 미첨부 73명
 - 경력기술서 18명
 - 동영상 12명
 - 추천서 1명
- 증명서 29명
- 자격증 18명
- 기획서 5명



서울 지역 개발 회사의 경쟁률을 보자.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관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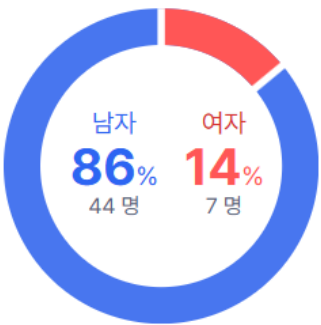
대표자명 *	홍석명	기업형태	중소기업, 주식회사
업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원수 *	7 명 (2022년 기준)
설립일 *	2011년 12월 27일 (업력 15년차)	매출액 *	16억 1,482만원 (2022년 기준)
홈페이지	sir.kr	기업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1404...

지원자수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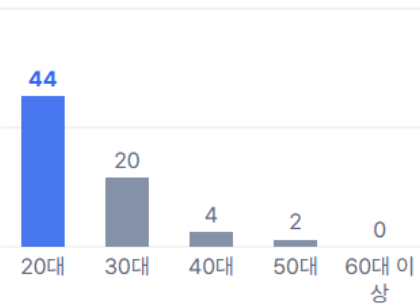
백엔드 개발자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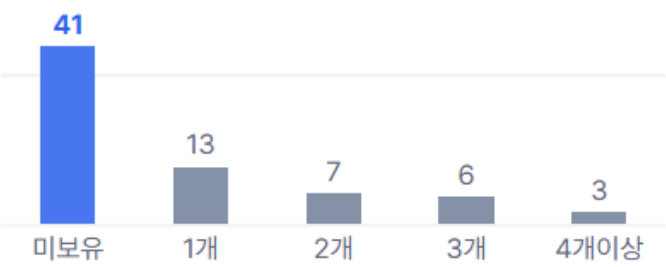
성별 현황



연령별 현황



자격증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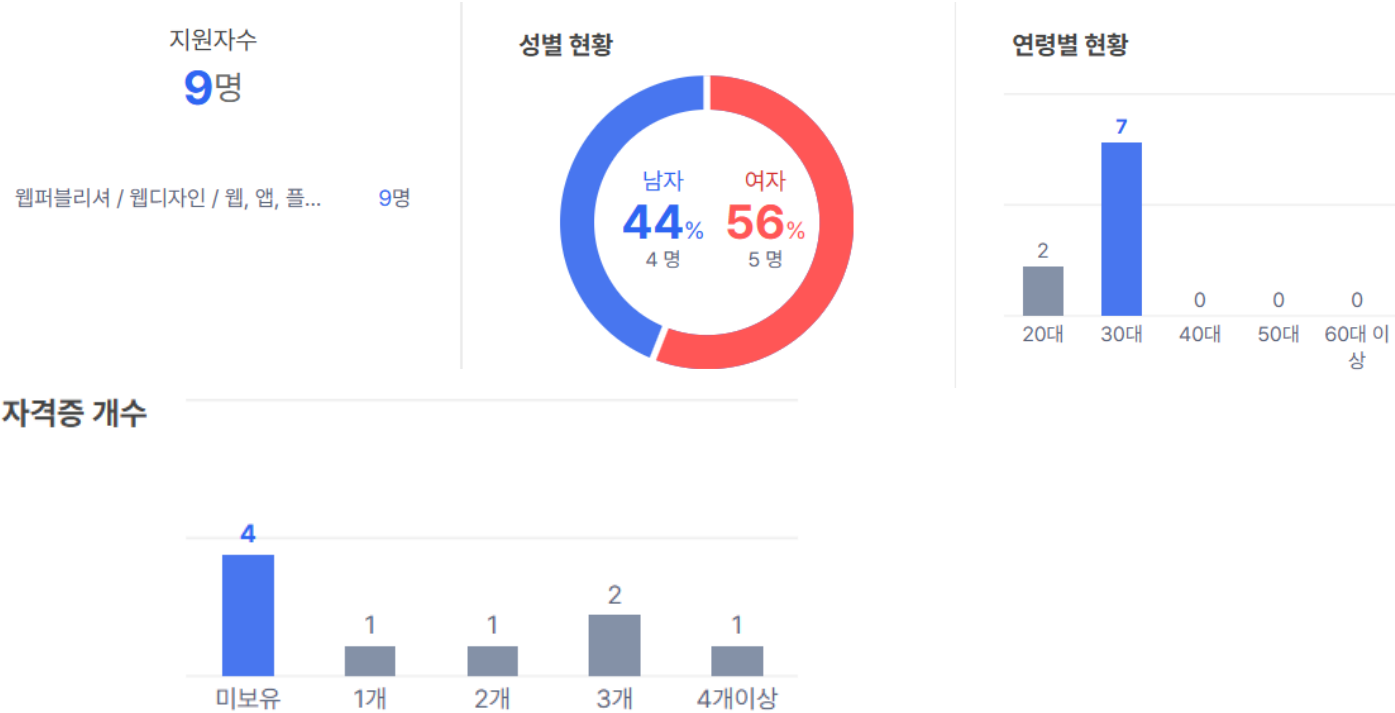
상당한 경쟁력이다. 이런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도 한 번 보려면 자소서, 포트폴리오, 자격증 어느 하나 소홀해선 안된다. 특히, 자격증은 무조건 하나는 취득하자!

울산 지역 개발 회사의 경쟁률을 보자.

(주)대동씨엠씨 [♡ 관심기업](#)



대표자명 *	최진혁	기업형태	중소기업, 사단법인, 연구소, 주식회사
업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직원수 *	21 명 (2024년 기준)
설립일 *	2018년 3월 21일 (업력 8년차)	매출액 *	45억 4,356만원 (2024년 기준)
홈페이지	daedongcmc.com	기업주소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6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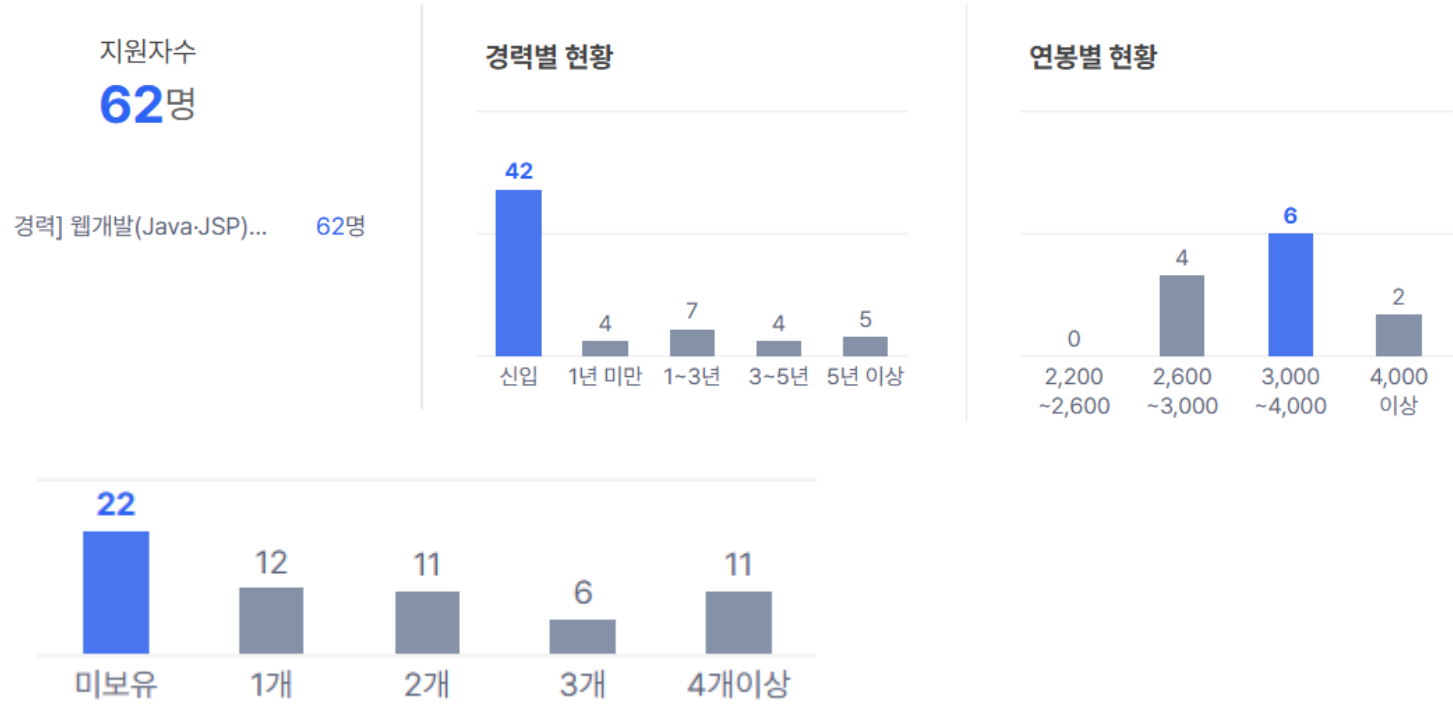
울산 지역 개발 회사의 경쟁률을 보자.

(주)호넷소프트 ♡ 관심기업



대표자명 *	강진웅	기업형태	중소기업, 주식회사
업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원수 *	23 명 (2022년 기준)
설립일 *	2011년 8월 1일 (업력 15년차)	매출액 *	22억 8,213만원 (2022년 기준)
홈페이지	https://hornet.kr:8443/	기업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3, 3층 31...

예전에는 서울 지역으로 취업 도전이 훨~씬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젠 아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울산에서 취업 후 경력직으로 서울을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3. 자기소개서 작성 및 예시

-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직무역량(프로젝트 경험), 나만의 강점, 입사 후 포부 등 4가지에 대해 작성한다.
- 각 주제에 대해 500~700자 정도 작성한다.
- 인사담당자는 모든 내용을 절대 다 읽지 않는다. 그러니 두괄식(결론부터 작성)으로 작성한다.
- ‘저는’, ‘저희는’, 줄임말, 부정적 표현, 감정표현(느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 문단 구분을 잘 하자. 문단을 구분하면 읽기도 편하다. 구분을 하지 않으면 못 배운 티난다.
- 특별한 성과를 낸 경험이 아니고선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 잘하는 신입보다 잘할 수 있는 신입이 될 수 있음을 작성해야 한다. 능동적 학습, 문제해결 능력, 수치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진적 성장을 최대한 표현하도록 하자.
- 추상적인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며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 요즘은 유튜브에 본인이 작성한 자소서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많다. 취업 의지가 있다면 자소서 작성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사람인 양식 혹은 노선을 사용하자. 단 노선으로 작성 시 제출은 링크가 아니라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 제발 지원동기는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 수정 후 제출하자.

지원동기

- 지원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필 왜 이곳인가’ 를 이야기해야 한다.
- 지원동기는 ‘직무에 대한 동기’, ‘회사에 대한 동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기업이 듣고 싶은건 ‘회사에 대한 동기’ 이다.
- 회사에 대한 동기에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보여야 한다. 저창한 내용은 필요없다. 그냥 인사담당자가 ‘그래도 취업하려고 정보 좀 찾아봤네’ 정도 만 느끼게 해주면 된다.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뉴스 등에서 찾으면 된다. 홈페이지도 없는 IT기업이라면 그냥 지원하지 마라.
- 단, 지원동기에 주구장창 조사한 기업 정보만 작성해서는 안된다. 그건 기업 조사 보고서지 지원동기가 아니다. 기업의 기술, 제품, 파트너사, 연혁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나와 연결시켜야 한다.
- 기업 자료가 너무 없다면 ‘직무에 대한 동기’를 작성한다. 잘 만든 직무동기 하나는 여러 기업에 지원 시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는 필살기가 될 수 있다.
- 우리 대부분은 비전공자이기에 ‘왜 개발자를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시켜도 좋다. 어차피 이 질문은 100% 면접에서 나올거다.
- ‘개발자가 되자고 하는 이유’와 ‘회사 지원 동기’가 길다면, 두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작성해도 좋다.

"A사의 글로벌 역량에 기여하고 ○○○ 시장 1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B사의 최신 기술인 X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이미징 솔루션을 제안하는 A사와 코딩 역량,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 설계 경험이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역량위주 경험 설명)

이러한 경험으 실무에 매우 적합한 역량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의 기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훌륭한 개발자로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동기 예시(첨삭 전)

[마트료시카, 웹개발]

웹 개발은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과 같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완성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정교하고 풍부한 구조로 발전해 나갑니다.

식물 커뮤니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마트료시카 같은 웹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기능만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즈베리파이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재배 환경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MariaDB)에 저장하고, 이를 Spring 백엔드에서 처리한 후 React 프론트엔드로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각 작물에 적합한 환경 데이터를 가공하여 DB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실측 환경과 적정 환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에 맞춰 게시글 작성 시에는 Editor를 쓰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한 경험으로, SI 중심의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즈넷 회사에 관심이 생겼고, 또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트료시카처럼 끝없이 확장되는 웹 개발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두괄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없다.
- 학습한 내용이 어떤 면에서 지원하려는 회사와 관련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지원동기 예시(첨삭 후)

[마트료시카, 웹개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회사에 맞는 지원동기가 나타난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웹 개발의 올라운더가 되고자 오즈넷코리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웹 개발자 학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웹 기술로 셀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분야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경험이야말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신입 개발자로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오즈넷코리아는 CRM, POP/SCM, 그룹웨어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오즈넷코리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오즈넷코리아의 다양한 솔루션을 경험하고, 해당 솔루션의 발전에 기여하며, 저 또한 성장 기회를 갖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웹 개발은 마치 마트료시카 인형과 같습니다. 하나의 기능을 완성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해지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정교하고 풍부한 구조로 발전해 나갑니다. 식물 커뮤니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마트료시카 같은 웹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커뮤니티 기능만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즈베리파이와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재배 환경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MariaDB)에 저장하고, 이를 Spring 백엔드에서 처리한 후 React 프론트엔드로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각 작물에 적합한 환경 데이터를 가공하여 DB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실측 환경과 적정 환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에 맞춰 게시글 작성 시에는 Editor를 쓰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한 경험은 오즈넷코리아에서 여러 웹 솔루션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마트료시카처럼 끝없이 확장되는 웹 개발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회사와 연결한다

프로젝트를 하며 본인의 개발경험을 어필한다.

직무역량(프로젝트 경험)

- 프로젝트 경험은 구현한 기능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개의 핵심 기능을 구현한 경험에 대해 작성한다.
- 이때 문제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태도,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
- 가장 좋은 것은 결론부에 수치가 작성되는 것이다. 거창한 것은 필요없다. 어차피 우린 거창한 일 못 한다.
- 예시)

기능 구현 후 리팩토링을 진행했다 -> 중복된 코드가 줄어, 각 파일당 10%정도의 코드길이를 줄일 수 있었다.

최적화를 진행했다 -> 리랜더링 횟수를 10회에서 5회를 줄였다.

나만의 강점

- 강점은 반드시 개발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강점이 학습 혹은 프로젝트 중 적용된 사례가 있어야 한다.
- 결국 ‘나만의 강점’이지만 두번째 직무역량을 작성하는 것이다.
- 혹은 개발자는 협업은 중요하기에, 협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작성해도 된다.
- 예시)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 구현한 기능에 항상 예외처리 진행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매일 회의를 진행 -> 노선에 정기적 회의 내용 작성되어 있어야 함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기능 구현 후 다른 팀의 구성원에서 항상 피드백을 받은 후 기능 수정

작무역량 예시(첨삭 전)

[세심한 설계와 실험을 통한 안정적인 쇼핑몰 개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모두 경험하며 서비스 전반의 설계 감각을 키웠습니다."

웹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에서 전체 아키텍처 구성부터 프론트 구현, 백엔드 연동까지 직접 담당하며 개발 전반에 대한 실전 감각을 쌓았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실제 사용 경험을 중시하며, 기능 구현 후 항상 주변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만족하던 기능을 6명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JWT 기반 인증과 리프레시 토큰 활용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한 설정을 위해 JWT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 세션스토리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지 않아 액세스 토큰 만료로 인한 재로그인 문제로 사용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클라이언트에서 토큰 만료 시간을 실시간 계산하여, 만료까지 1분 이하일 경우에만 서버와 통신하여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로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React 상태 관리와 실시간 DB 반영으로 사용자 중심 장바구니 기능을 설계해봤습니다."

장바구니 기능 개발 시, 수량과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React의 상태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초기에는 클라이언트 측 반영만 고려했으나, 실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DB까지 실시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체크박스나 수량 변경 시 즉시 서버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여 사용자 경험과 성능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도출했습니다.

- 첫 문장을 수치화시킬수 있는 내용임
- 만족도를 올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직무역량 예시(첨삭 후)

[40%의 만족도를 70% 만족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내용은 수치를 작성하자

수치를 향상시킨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기능 개발 후 반드시 코드리뷰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웹 쇼핑몰 구축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능 구현 후, 또는 웹 페이지 구현 후, 주변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습니다. 초기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만족도가 낮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쇼핑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10명의 동료 수강생에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충격적으로 4명의 수강생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피드백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JWT 기반 로그인 기능은 잘 구현되었지만, 토큰 만료로 인한 재로그인 불편함이 있었다.
2. 장바구니 화면의 UI/UX가 다소 불편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지 않아 액세스 토큰 만료로 인한 재로그인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토큰 만료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만료까지 1분 이하일 경우에만 서버와 통신하여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 받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자 경험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장바구니 UI/UX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B와 화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React의 상태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체크박스나 수량 변경 시 즉시 서버에 반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과 성능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족하는 수강생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고, 사용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강점 예시(첨삭 후)

[]

둔필승총이라는 말을 좋아해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간 진행된 팀 프로젝트 동안 회의록과 프로젝트 진행 중 고민했던 점, 어려웠던 점 등을 총 50개의 글로 Notion에 성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툴 중 Notion을 선택해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의 학습에서 얻은 방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 학습을 통해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둘째, 신입 개발자로서 단순히 기능 구현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코드나 생소한 문법을 직관적으로 정리해 스스로 공부하고 기록하며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React-quill 에디터를 사용한 '식물 이야기' 수정·등록 기능에서, 제목(title)은 input으로 받고 내용(content)은 에디터로 받는 과정에서 상태 업데이트 비동기 처리 문제로 인해 수정 및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Notion에 좋아요 중복 방지를 함수형 업데이트로 해결한 기록이 있어 응용하여 해결한 경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No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무에서도 꾸준히 기록하며 공부하는 성실함을 무기로 삼아 끈기 있게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강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록한 회의록 링크입니다 .

<https://www.notion.so/1ce566eeddb2803384dae25de53fca10?v=1ce566eeddb2802c936a000ca7723439>

고민했던 과정들이 기록된 개인 프로젝트 작업일지 링크입니다 .

<https://www.notion.so/GreenShare-1dc566eeddb28027a0f5d405511e801a>

입사 후 포부

- 입사 후 포부는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실수는 범하기 가장 쉬운 주제이다.
-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어디서 주워들은 그럴싸한 내용으로 작성하지 말자. 면접 때 공격당하기 쉽다.
- 추천하는 것은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느낀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겠다. 라는 느낌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정도 작성하자)
- 요즘 IT는 ‘인공지능’이 큰 화두다. 그리고 우리는 GPT를 사용하며 느낀 점이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 예시)

대화로만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문제점 인식 경험 -> 문서화, 이미지화, 크로스 체크 등으로 서로 간의 의사 표현을 명확 시 체크하는 개발자가 되겠다.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하더라 -> 부족한 점 중 본인만의 기준으로 학습 우선순위 결정, 학습 진행(증명할 수 있어야 함)

GPT가 알려준대로 코드 구성하니 XX문제 발생하더라 -> GPT의 장점만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겠다(프로젝트 설계, 최적화 등)

4. 포트폴리오 예시 소개

- 예전에는 취업을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등이 필수였으며 포트폴리오는 개발자 취업을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
-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개발자 취업에 포트폴리오는 필수다.
- 포트폴리오는 자기 PR 용도로 사용한다. 취업은 개발을 잘하는 것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개발 실력이 부족해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미리 취업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개발만 잘하고 포트폴리오 귀찮다고 안해서 취업 못한 경우 다수임..)
- 프로젝트의 내용이 우수하고, 어려운 로직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면 가장 좋겠지만 6개월도 배우지 않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다.
- 채용담당자 입장에서의 구인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이란 개발을 잘하는 지원자, 성실한 지원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 의사 소통이 원활한 지원자, 개발 능력 향상에 매진한 지원자 등 일 것이다.
- 이 중,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성실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발 능력 향상에 매진한 지원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앞으로 매일 프로젝트 진행에서 본인이 한 것, 오류가 난 것, 몰라서 찾아본 것을 전부 기록한다. 데일리 기록으로 성실성을 보여주고, 매일 작업한 내용과 오류를 통해 배운 점을 기록하여 성장 가능성 및 개발 능력 향상에 매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 고생은 하겠지만 어차피 실력이 거기서 거기인 신입 개발자에서 차별화는 이것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포트폴리오 대충 만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잘해도 차별화가 된다. 대충 만드는 1인이 되지 않길...)
-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항상 지금 개발하는 내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혹은 개발일지에 남길지 고민하면서 작업하자. 프로젝트 따로, 포트폴리오 따로 생각해서 작업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의 output은 함께 가져가야 한다.
- 포트폴리오 내용 대부분은 '결과'에 치중된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얻기위해 고민한 흔적을 꼭 남겨야 한다. 고민이 없다면, 우리가 들고간 포트폴리오를 진짜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